

# 생애사를 통해 본 이혼 한부모 여성가장의 삶과 대처양식

조 희 선(성균관대 교수) · 전 보 영(성균관대 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 한부모여성가장의 삶과 그 대처방식을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서 심층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에 8명의 이혼 한부모여성가장을 심층면담 <표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델바움(Mandelbaum, 1973)이 제시한 5가지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차원을 분석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연령/학력	직업	자녀	월 수입	한부모가 된 기간
김선영	56세/박사수료	상담사	1남 2녀	300만원(불규칙)	15년
이유진	54세/고졸	노점상&식당운영	1남	250만원(불규칙)	12년
고지원	58세/중졸	분식집운영	1남 1녀	150만원(불규칙)	10년
강민주	52세/대졸	교직원	1남	300만원	10년
최수연	42세/고졸	식당주방장	1남 1녀	170만원	6년
신선희	45세/고졸	산모도우미	1남 1녀	120만원	6년
구민지	45세/대졸	보험설계사	2남	300만원(불규칙)	5년
박민희	46세/고졸	공공근로(청소)	1녀	100만원	20년

참여자들의 이혼 후 한부모 여성가정이 되어가는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5가지의 삶의 영역에서는 <생물학적 영역: 고갈>, <심리적 영역: 감정의 복잡성>, <심리사회적 영역: 슈퍼우먼>, <사회적 영역: 혼자 사는 여자>, <문화적 영역: 극복할 수 없는 벽>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전환기는 결혼, 이혼, 삶의 새로운 개척으로 도출 할 수 있었다. 한부모 여성가장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능력보다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심리적인 어려움은 종교의 힘, 생각의 단순화를 통한 현재의 삶에 충실, 시간의 경과라는 대처양식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심리사회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삶의 의미 재조정함으로써 적응을 해 나아갔으며,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는 편견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 보다는 편견에 대한 무시라는 방법으로 적응했으며, 자신이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주변 믿을 만한 사람들의 지지 안에서 살면서 사회·문화적인 이데올로기와의 충돌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만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나이도, 살아온 환경도 달리 살아왔지만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고 있다는 모습은 공통점인 것 같다. 하지만 사회 속에서 비주류의 모습으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한 그 어려움과 아직도 씨름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회적인 도움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이러한 입장에서 주류 가족 대 비주류 가족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든 형태의 가족이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두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